

## 2022 열린 인생 8.

## 고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1.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1-12]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통해 8복에 대해 말씀하신다. 8복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일은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단'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말한다.**

세상에서 수단이 중요한 이유는 수단이 없다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에 절대적 가치를 둔다.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춘다. 설득력이 있는 수단은 절대적 힘을 소유한다. 그래서 수단은 논리적 구조를 만들고 합리적 생각과 이성애 호소한다. 방법과 수단만 따라간다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고난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8복의 개념을 보라.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 **'존재'를 말한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한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복 있는 존재의 속성을 말할 뿐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복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존재가 수단이 될 수 없다. 수단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McBride가 수단이 좋아서 은총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다. McBride 자체가 은총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McBride이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단이나 도구가 되면 고난의 시간을 해석할 수 없다. '내가 쓸모가 없나? 내가 버림받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과정이 된다.

## 2. 고난에 대한 정의

존재를 통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간을 이겨 낼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빠진 '혼에 속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고난을 절대 해석할 수 없다.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은 실제적인 고통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도 잔을 옮겨 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을 통독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받으셨던 고난의 장을 읽었다. 그분이 받으셨던 수치와 모욕, 일개 무명의 병졸에게 뺨을 맞으셨던 그 고난은 실제이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와서 내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아마 진짜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옴의 친구들이 옴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옴의 고난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옴의 친구들의 분석은 '선악과'의 저주이다. 이유를 발견해서 믿겠다는 교만의 보좌에 얽은 인간의 모습이다. 자신이 주인이 된 인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은 '존재적 믿음'이다.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을 보이신다. 그 예가 탕자의 비유이다. 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권세의 옷을 입히셔야 하는 어떤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아버지의 말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

[누가복음 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아들의 상태를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오직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다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시다.

### 3.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1-12]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으며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선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 사람이 하늘의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성도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다가 받은 고난이 오히려 내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 4. 베드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 딱 하나 질문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베드로는 지금 사망의 시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다. 이 시간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베드로의 고난과 고통을 사실대로 본다면 베드로의 연약함보다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다. 만약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냥 물고기 잡으며 잘 살아갔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따른 것도 아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다. 왜 하필 베드로인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없었을 것 아닌가?

베드로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그 고통의 시간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다. 고통의 끝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그렇다. 베드로가 이 고통의 시간 끝에 듣고 싶었던 음성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일 것이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의 마지막은 ‘사랑’이다. 그 사랑 앞에 어떤 의미도, 이유도 없다. 사랑해서 그렇다.

[요한복음 21:18-19]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미 베드로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그 영원 속에 이 땅의 시간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가 통과했던 고난의 시간은 먼지도 되지 않는다. 영원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승리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게이트가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딱 하나이다. ‘성결함, 순결함, 깨끗함, 담대함’을 선물로 준다. 고전 3장의 불 시험에서 타지 않을 정결한 것만 남는다. 그래서 옴처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니엘의 사자굴 / 요셉의 고난 / 다윗의 고난 / 욕의 고난 /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난 / 이 고난의 모든 이유는 단 하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 ‘베드로의 고난 / 성도의 고난’

베드로의 절망(환난)은 소망을 가져온다. 환난은 소망을 구해 온다. 환난은 내 내면의 소망의 상자를 오픈할 수 있도록 (소망 상자의 열림은 용수철 방법) 압력을 가한다. 그 압력을 통해 용수철이 압력을 받고 소망 상자가 열린다. 베드로의 환난과 절망은 예수만을 갈망하는 소망을 낳게 했다. 환난의 가장 큰 유익은 내면의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소망을 향한 마음만 남게 하는 순결함이다.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의 끝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